



보도시점 2024. 6. 19.(수) 16:00 배포 2024. 6. 19.(수) 10:00

한덕수 국무총리,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방문

- 산사태로 인명피해 없도록 주민대피 체계 점검, '23년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등을 당부하고 현장 근무자 격려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6월 19일(수) 오후,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했다.
 -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(5.15~10.15)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·전파,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·운영된다.
- 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작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‘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’ 등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
 - 산지의 산사태만 관리하던 시스템에 농지 등 각 부처별 사면정보*를 통합한 ‘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’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,
 - * 행안부급경사지, 농식품부농지, 산업부발전시설, 국토부도로사면,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등
 -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산사태 재난에 공동 대응하도록 주문하였다.
- 한 총리는 또한 “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
 -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예측과 대비,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,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 - 특히, 행안부, 산림청,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대피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,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조치 등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경제조정실	책임자	과 장	최민지 (044-200-2231)
	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조한겸 (044-200-2233)